

『어린이』와 『선봉』에 실린 사회주의 국가 피오넬* 활약을 그린 소년소설 비교

심경순**

국문초록

『어린이』와 『선봉』은 1923년에 창간된 잡지와 신문이다. 『어린이』는 민족계열 잡지로 평가되고 『선봉』은 전동맹 공산당 기관신문이다. 『어린이』와 『선봉』은 창간취지가 서로 다르지만 1926년에 보빈스카야의 소년소설 번역본을 공통적으로 싣고 있으며 흥미롭게도 공산당 신문 『선봉』에서는 『어린이』에 실린 「생각해냈다」와 「재판」의 번역본과 비슷한 텍스트가 발견된다. 『선봉』에서는 『어린이』에 실린 길동무의 「생각해냈다」와 「재판」 번역본을 참조하고 일부 수정해서 『선봉』신문에 발표하고 있다. 본고는 피오넬 활약을 담은 소년소설이 민족주의 계열 잡지 『어린이』에서 사회주의 계열 신문 『선봉』으로 역수출되었다는 흥미로운 사실에 기초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고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어린이』와 『선봉』에 실린 번역본 텍스트를 비교해보았다. 번역본의 텍스트 비교를 통해 『선봉』의 번역본은 『어린이』의 번역본을 참조했다는 결론을 내린다. 제3장에서는 『선봉』에서 필명 철산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이고 『어린이』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연해주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노력하였다. 결론에서는 본고를 통해 얻은 결과와 제대로 증명되지 못한 부분을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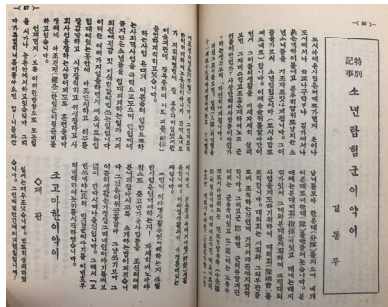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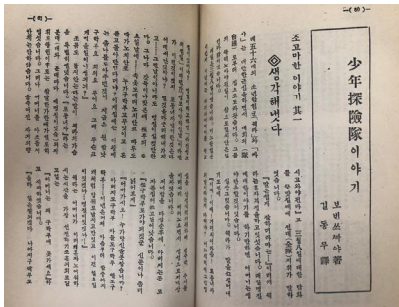
■ 주제어 : 『어린이』와 『선봉』, 민족주의, 사회주의, 번역본

* 소련 및 공산권 국가의 소년단 조직.

** 인하대학교 박사과정, shenjingshun916@naver.com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어린이』와 『선봉』에 수록된 피오넬 소년소설 텍스트 비교
3. 『어린이』가 연해주로 흘러간 경로
4. 결론



출처: 『어린이』第四卷第七號七月號



출처: 『선봉』신문1926년12월2일자, 『선봉』신문1927년2월9일자

1. 들어가는 말

근대시기에 각국 문화가 교류하는 현상을 찾아 볼 수 있다. 『어린이』가 창간되기 이전 일본에서는 이미 40여 종이 넘는 아동잡지가 발매되고 있었고²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던 방정환은 일본아동잡지와 일본문화를 접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린이』 운영에 활용했다. 『어린이』의 편집실후기를 보면, 『어린이』가 해외에서의 주문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따라서 『어린이』는 해외에서도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다. 근대시기 문화는 국경을 넘어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어린이』는 1923년 방정환의 주도하에 간행된 잡지이다. 개벽사에서 발행된 『어린이』는 천도교소년회의 기관지 성격을 띠고 있다. 1923년 2월 17일 『동아일보』에서는 ‘천도교소년회 회원 오백명을 모집 잡지 어린이를 발행’이라는 제목으로 된 기사가 실렸는데 그 기사에서는 ‘삼월일일부터 소년잡지 『어린이』를 발행하기위하여 방금 준비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어린이』의 발행계획과 비슷한 시간에 발행된 『선봉』은 연해주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들에게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하고자 발행된 신문이고 발행처는 ‘전동맹 공산당’이다. 『선봉』은 3.1운동 4주년을 기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창간되었고 신문이름도 창간 당시에는 『三月一日』이었으나 제4호부터 제호를 『선봉』으로 바꿨다. ‘사회주의혁명의 선봉에 선다’는 이름을 딴 『선봉』은 공산당의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하고 전파하는데 목적을 두었고 『어린이』와는 확연히 다른 취지에서 창간되었다. 『어린이』와 『선봉』은 비슷한 시간에 창간된 잡지와 신문이지만 내포독자와 창간취지가 서로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6년 『어린이』와

2 박종진의 「1920년대 일본아동문예잡지 『긴노후네』와 조선동화」를 참조

『선봉』에는 폴란드의 프롤레타리아 여성작가 보빈스카야의 소년소설 「생각해냈다」와 「재판」의 번역본이 공통적으로 실렸다는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어린이』에 실린 번역본의 역자는 길동무이고 『선봉』에 실린 번역본의 역자는 철산이다. 길동무는 『어린이』에 철산은 『선봉』에 번역본을 발표하였지만 그들의 번역본은 유사성을 띠고 있다. 본고는 1926년에 보빈스카야의 어린이소설 「생각해냈다」와 「재판」이 『어린이』와 전동맹 공산당 신문 『선봉』에 공통적으로 실렸다는 사실에 기초해 논의를 펼쳐보고자 한다.

『어린이』에는 1926년에서 1928년에 거쳐 피오넬 생활을 소개하는 글들이 꾸준히 실렸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1926년 『어린이』에는 길동무라는 필명으로 발표된 피오넬 소년소설 「봄철을맞는 ‘어린이공화국’」과 「소년탐험군이악이」가 실린다. 『어린이』에 실린 「소년탐험군이악이」를 보면, 길동무는 보빈스카야의 「작은이야기」에서 「생각해냈다」와 「재판」을 선택하여 번역하였다. 엄희경의 연구에 따르면 “방정환은 ‘길동무’라는 필명으로 당시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의 소년단 활동을 소개하는 글을 『어린이』에 연재하다가 아예 삭제될 당하기도 했다”³고 한다.

『어린이』는 이른바 민족계열잡지로 평가되면서도 피오넬 활약에 관한 글이 줄곧 발표되었다. 보빈스카야의 「작은이야기」 중에서 방정환으로 추정되는 길동무는 「생각해냈다」와 「재판」을 선택하여 번역을 진행하였는데, 「생각해냈다」와 「재판」의 텍스트를 읽어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다. 「생각해냈다」는 ‘페미니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재판」은 ‘민주적인

3 엄희경, 『소파 방정환과 근대 아동문학』, 경진출판, 2000, 120면.

방정환은 1927년 1월에 ‘일기자’란 필명으로 「로시아 빼오네르」를 썼는데 이 기사는 삭제되었다. 이후 1928년 8월에 ‘로시아 영사부인’ 치차에 크세니아의 「씩씩하고꽃꽂한 로시아의 어린이생활」이라는 글을 실으려다가 또 다시 삭제 당했다.

토론' 문제를 다루고 있어 방정환의 관심사와 맞닿는 지점이 있다. 개벽사에서는 1922년 여성잡지 『부인』을 창간하고 1923년 9월호부터 잡지 제호를 『신여성』으로 바꾸었다. 방정환은 1924년부터 『신여성』의 편집인 겸 발행인을 맡으면서 여성의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던 것이고 「재판」에서 다루고 있는 소년들의 '민주적인 토론'은 방정환이 소년회 운영에서 활용하고 싶었던 바람이다. 방정환이 편집을 맡았던 『어린이』는 민족계열잡지로 평가되지만 사회주의 사상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았다. 『어린이』에서는 천도교윤리와 어울리는 사상은 받아들이고 사회주의에 대해 항상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선봉』에서는 일찍이 '소년탐험군'에 관한 신문기사가 줄곧 실렸으며 따라서 『선봉』에서 1926년 12월부터 피오넬 활약을 그린 「생각해냈다」와 「재판」의 번역본을 연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다만 『선봉』에 실린 번역본이 『어린이』에 실린 「생각해냈다」와 「재판」의 번역본을 수용했다는 것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 지역에서 발간된 전동맹 공산당 신문 『선봉』에서 조선 민족계열의 잡지 『어린이』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어린이』의 해외 영향력과 위상을 재고해볼 수 있다.

『선봉』에 실린 번역본은 철산이라는 필명으로 발표되고 있다. 길동무의 번역과 철산의 번역은 반년 남짓한 시간적 차이를 두고 있다. 발표된 시간 순으로 보았을 때 『어린이』에 실린 번역본이 반년 앞서 발표되었다. 따라서 피오넬 활약을 그린 소년소설 「생각해냈다」와 「재판」은 민족주의 계열 잡지로 평가되는 『어린이』의 번역본을 사회주의 계열 신문으로 평가되는 『선봉』에서 참고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피오넬 활약을 담은 소년소설 「생각해냈다」와 「재판」의 번

역본이 민족계열 잡지 『어린이』에서 사회주의 공산당 신문 『선봉』으로 역수출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 공산당 신문 『선봉』에서는 소년탐험군에 관한 기사가 줄곧 실렸지만 피오넬 활약을 담은 소년소설이 실리게 된 것은 처음이다. 따라서 「생각해냈다」와 「재판」의 연재는 『선봉』신문의 전체적인 발전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고는 식민지 조선에서 발행된 『어린이』와 연해주 전동맹 공산당 신문 『선봉』에 공통적으로 수록된 피오넬 소년소설 비교를 중심으로 이들의 영향관계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우선 먼저 길동무의 번역과 철산의 번역본의 텍스트 비교로 번역본간의 상호관계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철산은 누구인가, 『어린이』와 『선봉』은 어떠한 영향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아울러 『어린이』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연해주로 역수출 되었는지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보자 한다.

2. 『어린이』와 『선봉』에 수록된 피오넬 소년소설 텍스트 비교

『어린이』와 『선봉』에 공통적으로 수록된 피오넬 소년소설 「생각해냈다」와 「재판」은 엘레나 보빈스카야 작품이다. 엘레나 보빈스카야(1887-1968)는 폴란드 태생의 프롤레타리아 작가이고 청소년을 위한 수많은 책을 썼으며 그녀의 작품은 폴란드어, 러시아어, 불가리아어, 헝가리어, 벵골어, 슬로바키아어, 독일어, 노르웨이어, 체코어, 프랑스어로 출판되기도 했다. 보빈스카야는 소설 「행복한 소년」(*Oszczęliwym chłopcu*, 1918년)으로 데뷔했으며, 여기에서는 지식인 가족에서의 어린이 삶과 프롤레타리아 어린이의 운명을 대조했다. 이후 캠프의 개척자(1925년), 파이오니어

코트(1926년), 작은 이야기(1926년), 스택: 성인을 위한 어린이 이야기(1928년)가 발표되는데, 식민지 조선에서 길동무는 1926년에 발표된 「작은 이야기」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번역하였다.⁴

길동무가 번역한 「생각해냈다」에서는 소년탐험군의 일원인 주인공 웨라가 노동부녀를 위한 3.8절을 맞이하면서 ‘어머니를 가사노동에서 해방시키고 구락부로 초대하자’는 탐험대의 임무를 전달받고 새벽 일찍 일어나 어머니의 가사 일을 도와주어 어머니를 가사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의 ‘어머니’는 이른바 노동하는 여성이고 이 작품은 노동여성의 가치를 중요시여기는 페미니즘 작품이다. 이와 함께 번역된 「재판」은 독일 노동자 아이들에게 기부하는 기부금을 탐험대일원인 주크가 훔쳐간 사건을 두고 어린이 나라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이야기이다. 재판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피오넬 캐릭터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주크의 도적행위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고 재판결과는 주크를 용서하고 주크를 도와주기로 한다. 「재판」에서는 피오넬 소년들이 자치하며 ‘민주적인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어린이들이 주인이 되어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해나가고 있다. ‘소년자치’를 다룬 「재판」과 ‘페미니즘’의 문제를 다룬 「생각해냈다」는 길동무에 의해 조선으로 소개되었고 연해주 전동맹 공산당 신문 『선봉』에서는 길동무의 번역본과 유사성이 높은 텍스트를 재수록하고 있다.

『선봉』신문의 성격을 고찰해보면, 앞서 언급했듯이 『선봉』은 공산당 신문이고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하는 취지에서 창간되었으며 공산당 관련기사가 대부분이다. 사회주의사상을 담기 위한 『선봉』은 총4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1면에는 사설, 조선국내의 소식 중 주로 사회주의운동기사, 주

4 https://pl.wikipedia.org/wiki/Helena_Bobi%C5%84ska. (2019.10.30)

요 세계혁명소식이 배치되고 2면에는 상단에 세계 각지 소식, 하단에 극동지역 단신과 문화면이 배치되었다. 3면에는 당 사업보고, 강령, 지시, 각 기념식 연설문, 당의 결정서 등이 실렸고 4면에는 정치, 경제학 강의, 신경제안의 해설, 노동법 해설 등이 게재되어 있다.⁵ 「생각해냈다」와 「재판」의 번역본 연재는 4면에 집중적으로 실렸고 이는 기존 『선봉』 4면에서 게재되었던 내용들과 사뭇 다르다. 『선봉』에서 ‘문예페이지’가 개설되기는 1925년 무렵인데 문예페이지가 개설되었어도 작품투고 량이 적었고 소설이 실리기 시작한 시점은 「생각해냈다」와 「재판」이 연재하기 시작해서부터이다.

번역본 텍스트 비교에 앞서 저본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어린이』에 실린 「생각해냈다」와 「재판」은 보빈스카야의 원작이라고 밝혀있고 『선봉』에 실린 「생각해냈다」와 「재판」도 보빈스카야의 원작이라고만 밝히고 있어 두 번역본은 저본에 대한 설명이 없다. 방정환의 번역에 관한 연구에서 저본을 찾는 작업은 일정한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사랑의 선물』을 비롯해 「귀먹은 집오리」등 다수의 작품이 일본의 것을 중역한 것으로 밝혀졌다.⁶ 짐작컨대 본고에서 다루고자하는 「생각해냈다」와 「재판」도 일본의 번역을 저본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길동무의 번역본을 보면, 일본어를 중역했을 것 같은 단어가 종종 나타난다. 이를테면 길동무는 책력, 음모객 등 일본 한자어를 직역하는 방식으로 번역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이애-이애-거더치어라쑈! 로동녀자의날이라는게 다 뭐냐! 어느책력이그런명

5 이명재, 『소련지역의 한글문학』, 국학자료원, 2002, 74면.

6 박종진의 「방정환의 번역작품 연구 『귀먹은 집오리』와 『불노리』를 중심으로」를 참조.

절이었느냐」

웨라가 현관으로 나아가는때 마다 두음모객(陰謀客)의 눈이 서로마조치었습니다.

『선봉』에 철산이라는 필명으로 번역된 「생각해냈다」와 「재판」은 『어린이』의 번역본과 텍스트가 대부분 일치하다. 저본의 문제를 간과하고 『어린이』에 실린 텍스트와 『선봉』에 실린 텍스트 비교로 번역본간의 관계를 밝혀내고자 한다. 번역본 텍스트 비교를 하려면 저본을 찾아보는 작업을 먼저 진행했어야 하는데 본고에서는 실증자료가 부족하여 저본을 찾는 작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본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번역본 비교는 텍스트의 유사성이 높아서 저본이 없이도 상호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 즉 저본을 찾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텍스트 비교로도 충분히 두 번역본간의 상호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1926년 6월 『어린이』에는 길동무가 번역한 피오넬 소년소설 「생각해냈다」와 「재판」이 실리게 되고 이후 반년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전동맹 공산당 신문 『선봉』에서도 「생각해냈다」와 「재판」이 실리게 된다. 공교롭게도 두 번역본은 텍스트가 대부분 비슷하고 『어린이』의 번역본이 먼저 실렸기에 필자는 『선봉』에서 『어린이』의 번역본을 일부분 수정해서 다시 수록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어린이』와 『선봉』에 실린 소년소설 번역본 텍스트를 비교하여 『선봉』에서 『어린이』의 번역본을 수용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어린이』와 『선봉』에 실린 「생각해냈다」와 「재판」의 텍스트비교로 번역본의 유사성을 검토하고 이들의 상호관계를 규명해보았다.

길동무의 번역과 철산의 번역 텍스트를 비교 해보면 대동소이하다. 본장의 예문에서 ㉠은 길동무의 번역본이고 ㉡는 철산의 번역본이다. 아래의 일례들을 살펴보면 주술관계나 어순의 문제가 일치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구절에서 나타나는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가 거의 일치하다.

㉠1:이때에 참말다섯살먹은 만나는 그빨갧빨갧한뺨을 밥그릇가에대이고 한손에는 채먹지안은 빵조각을권채로 벌서잡습니다.

㉡1:이때 실로다섯살먹은 만나는 빨갧빨갧한뺨을 밥그릇가에대이고 한손에 채먹지안은 떡조각을 쥐고 벌서잡드렸다.

㉠2:겨울에 꼼쓰몰(청년회)로 넘어가게되니까 바-로대단하게아는 모양이로 군....싸샤는 가마와다글그릇들을 밧그로 조용조용히 들어내오면서 이러케혼자 중얼거렸습니다.

㉡2:겨울에 꼼쓰몰(공산청년회)로 넘어가게되니까 바로 대단하게아는모양이로 군....싸샤는 가마와 다글그릇들을 박그로 조용조용히 들어내오면서 이러케혼자 중얼거리었다.

㉠3:푸르스름한명절옷을입고 구락부맨 앞상에 바로 연단을향하여 어머니는 안저잇섯습니다.

㉡3:푸르스름한 명절옷을입고 구락부맨앞상에 바로연단을향하여 어머니는 안저잇었다.

“빨갧빨갧”과 “빨갧빨갧”, “조용조용히”, “푸르스름한” 이와 같은 부사어는 철산의 번역이 길동무의 번역을 참조하였다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

다. 부사어 “빨긋빨긋”과 “빨깃빨깃”은 표현법에서 모음이 조금 다르지만 부사어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으며 ‘얼굴이 군데군데 빨그스름한 모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다. 즉 모음이 조금 다르지만 뜻이 같기에 하나의 부사어로 볼 수 있다. ‘조용조용히’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조용’을 반복하여 ‘조용조용히’로 번역을 진행하였고 철산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다. ‘푸르스름한’도 ‘푸르다’의 현상을 형용하고 있는 형용사로서 표현방식이 다양하지만 길동무와 철산은 ‘푸르스름하다’라는 형용사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 이것 외에도 ‘채먹지안은’이라는 표현수법과 고유명사 “꿈소몰”같은 경우를 보면, ‘채먹지안은’에서의 ‘채’는 ‘아직, 모두, 완전히’의 뜻으로 사용되고 표현 가능한 어휘가 다양하지만 길동무의 번역과 철산의 번역에서는 모두 ‘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어로 된 고유명사 “꿈소몰”의 경우도 러시아어를 음역하든 의역하든 보편적으로 표현법에서의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길동무와 철산의 번역에서는 외래어의 단어 번역이 일치하다.

다음으로 대화부분의 경우를 살펴보자.

㉠4:웨라는 싸샤의귀에 입을 뱃작대이고 『이애!니러나 글세!네한말을니것냐? 야 조타!뻘오네르!』

㉡4:웨라는 싸샤의귀에 입을 뱃작대이고 -이애!일어나 글세! 네한말을이것느냐? 야-조타-뻘오네르!

㉢5:어린만나와 와냐까지저의형들의본을바다 앞뒤로 왔다갔다하면서 『엄마 이하지마우...우이다하끼...』하며 바로정숙하게짓거렸습니다.

㉔5:어린마나와완나까지 저의형들의 본을받아 앞뒤로갓다왔다하면서-마마
이하지마 우이다하테하며 바로정숙하게 짓거리었다.

대화하는 부분에서는 장면서술과 구체적인 대화내용으로 나뉘는데, 길동무와 철산의 번역에서 대화 부분은 완전히 일치하다고 볼 수 있다. 입말을 사용하고 있는 대화내용이라든가 대화내용을 끌어내고자하는 장면서술, 대화내용이 삽입되는 시점들은 완전히 일치하다. 이를테면 ‘밧작 대이고’, ‘왓다갓다하면서’의 뒷부분에 바로 대화내용이 삽입되고 표현의 가능성이 다양한 대화내용에서도 높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철산의 번역이 길동무의 번역을 참조하지 않았더라면 같은 저본으로 번역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사성이 이렇게까지 높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철산의 번역본과 길동무의 번역본이 완전히 일치한 것도 아니다. 길동무의 번역본과 철산의 번역본 텍스트를 수평적으로 비교해볼 때, 조사, 단어, 문체, 맞춤법에서 어느 정도 차이도 있다.

길동무는 아이들을 내포독자로 인식하였기에 경어체를 사용하였지만 철산은 어른을 내포독자로 상정했기에 평어체를 사용하였다. 한편으로 1926년에는 한글 맞춤법이 규범화되기 이전이기에 맞춤법에 대한 논의는 넘어가고자 한다. 따라서 조사와 단어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길동무와 철산 번역본 텍스트를 비교해보았다.

㉔6:그들의 꼭해노아야될일이 참으로혈치안은일인까답이엇습니다.

㉔6:그들이 꼭해노아야될것이 실로혈치한인일이었다.

㉔6과 ㉔6를 보면, 조사 ‘의’를 조사 ‘이’로 바꾸었다. ‘의’는 앞 체언이

뒤 체언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작용의 주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서 이 문장에서는 ‘의’보다 ‘이’가 더 적절하다. 또한 철산의 번역은 ‘일’을 ‘짓’으로, 단어 ‘참으로’를 ‘실로’바꾸어서 번역하였지만 본래의 뜻을 변화시키고 있지는 않다. 철산의 번역은 대체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길동무의 번역을 재번역한 것이다.

철산의 번역에서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난해한 단어의 뜻을 더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쉬운 단어로 교체하거나 혹은 해석을 다는 방식으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하였다. 하지만 난해한 단어 외에 길동무의 번역과 철산의 번역은 어순과 수식어가 모두 일치하다.

㉔7: 「이애-이애-거더치어라쥬! 로동녀자의날이라는게 다 뭐냐? 어느책력에그런명절이있더냐?」

㉔7: -이애! 이애! 거더치어라쥬! 로동녀자의날이란게 다 뭐냐? 어느역사에그런명절이있더냐?

㉔8: 웨라가 현관으로 나아가는때 마다 두음모객(陰謀客)의 눈이 서로마조치엇습니다.

㉔8: 웨라가 현관(문간)으로나가는때마다 두사람의음모자(무슨일을몰래하는자)는 눈이서로마주치었다.

철산의 번역은 ‘책력’을 ‘역사’로 ‘두음모객’을 ‘두사람의음모자(무슨일을몰래하는자)’로 바꾸었다. 철산은 ‘두음모객’의 뜻을 풀이하여 ‘두사람의음모자’라고 번역을 하였지만 그래도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단어 뒤에다 ‘무슨일을몰래하는자’라는 해석을 달았다. 이것은

독자에게 뜻이 충분히 전달되기 위해 해석을 단 것으로 보인다.

㉑9: 구두를다벗기고 버선을벗기려시작할때에 별안간머리속에서 한가지의 생각이 벗적튀어나왔습니다. 그생각난반를 싸샤의귀에다대고 침실쪽을 흘깃흘깃보면서 한참동안이나 벽에부터서 이야기하였습니다.

㉒9: 구두를 다 벗기고 보선을 벗기려 시작할 때에 별안간 머릿속에서 한가지생각이 벗적튀어나왔다. 그생각난 것을 싸샤귀에다 대고 침실쪽을 흘깃흘깃 보면서 한참동안이나 벽에붙어서 이야기하였다.

철산의 번역에서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철산이라는 필명을 사용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철산은 자신의 언어습관에 맞추어 방언을 활용하여 번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테면 ㉑9의 ‘버선’을 ㉒9에서는 ‘보선’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차이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의 언어 습관에 따른 번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철산은 번역본의 내포독자를 연해주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으로 상정했기에 구두어에서 ‘어머니’를 ‘마마’로 바꾸었다. 「생각해냈다」의 대화하는 부분에서 사용되는 ‘어머니’는 모두 ‘마마’라고 바꾸었고 대화가 아닌 부분은 그냥 ‘어머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마마’는 러시아의 어머니라는 뜻으로서 ‘어머니’를 ‘마마’로 바꾼 것은 번역가 철산이 러시아 연해주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습관을 활용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다.

㉓10: 웨라는 어머니가 이러케 혼자 노여워하시는시간을 가장 선전하기조흔 기회로알고얼는 「어머니는 왜 구락부에 못가세오」하고 시작하였습니다.

㉩10: 웨라는 어머니가 어러케 혼자 노여워하시는 시간을 가장 [선덴]에 조
흔기회로생각하고 얻는 어머니는 왜 구락부에 못가세요? 하고 시작하였다.

㉩11: 「어머니는 옷을대려노치안코 방안을닥가노앗스니까 구락부에못간다
고그리섯지요?

㉩11: 마마는 옷을대려노치안코 방안을 닥가노앗스니까 구락부를 못간다고
그랬지요?

위의 일례를 살펴보면, ㉩10과 ㉩10은 앞부분의 내용에서 발췌한 것이
고 ㉩11과 ㉩11은 뒷부분에서 발췌한 것이다. 철산의 번역본의 대화부분
을 보면 ‘어머니’를 앞부분에서는 ‘어머니’로 번역하고 뒷부분에 와서는
‘마마’로 번역하고 있다. 즉 앞부분에서 철산은 길동무의 번역에 따라 구
두어의 ‘어머니’를 ‘어머니’로 번역하였지만 뒷부분에 와서는 연해주에
거주하고 있는 내포독자를 인식하고 구두어의 ‘어머니’를 ‘마마’로 바꾸
고 있다. 뒷부분에 와서 철산의 번역은 길동무의 번역과 어긋나는 곳이
있지만 그것은 내포독자인식의 차이로 인해 생긴 차이점이다.

「재판」의 텍스트 비교도 「생각해냈다」의 텍스트 비교와 비슷한 지점
들이 많다. 다만 「재판」과 「생각해냈다」의 텍스트 비교에서 가장 큰 차
이점이라고 할 만한 것이 주인공들의 이름번역이다. 「재판」에서는 아이
들이 회의를 통해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을 담은 소설이어서 아이들의 이
름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길동무의 번역은 러시아 이름과 지역명을 한
국어로 음역하였지만 철산은 러시아식 이름을 조선식 이름으로 바꾸어
번역을 진행하였다.

길동무 번역에서의 ‘쏟냐’, ‘와냐’, ‘까짜’ 등 러시아식 이름을 철산은

‘순애’, ‘재복이’, ‘경애’로 바꾸어 번역하고 있다. ‘쏟냐’를 ‘순애’로, ‘와냐’를 ‘재복이’로, ‘까짜’를 ‘경애’로, 월로자를 금바위로, 로자를 영애로, 주크를 만금이로, 철산은 일정한 내적논리를 가지고 인명을 번역하였다. 러시아어에서의 남성이름은 조선어의 남성이름으로 바꾸고 여성이름은 여성이름으로 바꾸고 있다. 인명에 이어 지역명 ‘뽕냐냐’촌도 ‘새마음’으로 바꾸었다. 인명과 지명의 번역에서 철산은 길동무의 번역을 따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단순한 내포독자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본다.

결과적으로 길동무와 철산의 번역본 텍스트를 비교해 볼 때 유사성이 높고 서로 다른 번역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어순의 문제나 주술관계의 일치성은 철산의 번역이 길동무의 번역을 참조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번역이다. 그렇다고 철산의 번역이 길동무의 번역과 완전히 일치한 것도 아니기에 철산의 번역은 길동무의 번역을 대부분은 참조하고 일부분만 수정해서 연해주 독자에게 어울리는 번역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어린이』가 연해주로 흘러간 경로

제2장에서 길동무의 번역본과 철산의 번역본 텍스트 비교를 통해 철산의 번역본은 길동무의 번역본을 참조하는 한편 일부분을 수정해서 번역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어린이』에 실린 길동무의 번역이 어떤 경로를 통해 연해주로 흘러갔는가? 길동무의 번역을 참조한 번역가 철산은 누구인가? 라는 의문이 든다.

본장에서는 『어린이』가 연해주로 건너간 경로를 살펴보고 철산의 신분을 밝혀보고자 노력했다. 우선 먼저 『어린이』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연해주로 흘러갔는지 그 가능성을 추론해보면, 첫 번째로는 『어린이』의 해외지사를 통해 연해주 독자들에게 읽혔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번역가 길동무와 친분이 있고 훗날 『선봉』의 문예란을 책임진 조명희에 의해 연해주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있다.

『어린이』의 독자담화실과 편집실후기를 보면 당시의 어린이 독자범위를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다.

창간호는 참말로 잘 팔려서 어떻게 기꺼운지 모릅니다. 그중에도 일본 내지 청국 같이 먼 곳에서도 주문이 자꾸 오는 것을 볼 때에 그렇게 그렇게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이와도 우리가 뜻을 서로 바꾸고 정답게 사귀어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기뻐하였는지 모릅니다.⁷

위의 인용문은 『어린이』 편집실후기이다. 여기에서 『어린이』는 창간 이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주문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로서 『어린이』는 일찍이 해외에서의 주문을 받았고 조선이외에 중국내지 일본의 독자층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특히나 독자담화실을 살펴보면 해외 독자의 목소리도 가끔씩 들린다. 독자 李海周는 북간도로 간 형님의 소식을 탐문하고자 『어린이』 독자담화실에 자신의 사정을 얘기하고 있고⁸ 중국길림성에 살고 있는 독자元有常는 ‘본국에서오는 어린이잡

7 한국방정환재단역음, 『정본방정환전집3』, 창작과비평사, 2019, 616면.

8 아아 여러분선생님과 우리十萬명의동모여러분 여러분께 눈물의 청탁을 드립니다. 저의 믿음李海周씨는 제작년十月에 北間島로가신후 작년봄부터 이때까지 아모소식이없고 답장도없습니다. 제발 北間島에 계신동모中에서 경찰에알아보아서라도 소식을알아주시면 그런감사한은혜가 또있겠습니다.

지를넘는것으로큰위안을얻는다'고⁹ 밝히고 있다. 독자들의 목소리로 당시 『어린이』는 해외에서도 읽히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다. 독자담화실의 내용으로부터 『어린이』는 해외독자를 확보하고 해외에서의 영향력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해외의 독자들은 『어린이』를 어떤 경로를 통해 받아보았을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린이』의 유통방식은 철도국과 우편국을 이용하는 두 가지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편을 통한 유통방식은 당시로서는 일반화된 유통 방식이었고 철도국을 통한 유통방식은 어린이를 지·분사로 보내고 독자들은 지·분사를 통해 『어린이』를 받아보게 하는 방식이다.

처음 애독자가 되시었다니가 아즉몰라서 그러시겠지만 어린이독자가 十萬이라는 것은 다른사람들까지 죄가아는일인데 그것을 모르신다니좀섭섭한일인데요 支社는 모다外國까지合二百三十곳에있습니다.¹⁰

위의 인용문을 보면, 『어린이』는 국내와 해외에 지·분사가 230여 곳 설치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해외독자들은 지·분사를 통해 『어린이』를 받아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의 외국은 구체적으로 그 범

간절히바랍니다.(鐵原公普校 李海周)될수만있으면 우리들동모의힘으로 소식을탐문해드렸스면쫓쫓습니다. 북간도에계신이힘써줍시오. (『어린이』 1926年第四卷第四號四月號「讀者談話實」)

9 남쪽으로 내 본국을향하여 늘울고있습니다. 이곳에서나서 이곳에서자라서 이곳학교에서 공부는잘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남의나라사람들에게압박을받고있는것은슬롭니다. 본국에서오는 어린이잡지를넘는것으로큰위안을어드나 어린이잡지는 마음대로왕래하는데 나는 왜 내본국에가보지 못 하나하고 웁니다 내본국산천이엇더게생겼는지도모르고사는사람이라 어린이독자여러동모께도 인사드리지못하고 잇섯스니용서하시고 편지로라도 만히지도해주시기바랍니다. (中國吉林省東寧縣東明學校元有常) (『어린이』 1924年第二卷第9號「讀者談話實」)

10 「讀者談話室」, 『어린이』 72, 1930.2, 69면.

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독자담화실의 내용과 결부시켜볼 때 ‘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는 『어린이』를 구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연해주에 거주하고 있던 동포들은 『어린이』의 해외지사를 통해 『어린이』를 받아보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제2장의 결론과 결부시켜보면, 『어린이』가 해외지사를 통해 연해주로 흘러갔다면 누군가가 『어린이』를 받아보았을 것이고 그것을 일부분 수정해서 철산이라는 필명으로 『선봉』에 실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연해주에서 누가 『어린이』를 읽고 그것을 다시 수정해서 『선봉』에 실는 작업을 했는지를 밝혀 보아야 한다.

철산이라는 필명으로 발표된 작품은 「생각해냈다」와 「재판」의 번역본 뿐이어서 철산이라는 필명을 사용한 자가 누구인지 추적이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우선 먼저 철산이 이백초일 가능성을 검토해보았다.

이백초는 1922년 조선에서 연해주로 이주해간 이주민이자 『선봉』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편집인이다. 『선봉』잡지의 편집인 이백초는 어린이 소설 「생각해냈다」와 「재판」을 처음으로 실을 때 소설에 대한 비평을 짤막하게 쓰고 있다. 『선봉』잡지의 편집인이 소설에 관한 비평을 쓴 것은 처음이었고 『선봉』 잡지에 어린이 소설을 연재한 것도 처음이었다.

이어린이소설을 어른들이꼭몬져일거야겠다. 지금어른들의아이적하구는 아조판이다른새환경에서자라나는 입수이못볼새아이들이 혼이어른들이자그들을 몰라주는데서 얼마만한고통을품고잇겠는가를 이작품에서잘깨닫게되리라고 믿는다.¹¹

11 『선봉』 1926.12.2에 실린 비평문.

이백초의 소설 비평으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이백초는 어른들이 먼저 이 소설을 읽기를 권하고 어린이들도 반드시 읽을 것을 권유한다. 즉 편집인 이백초나 번역가 철산이나 모두 일차적으로 내포독자를 어른으로 상정했다. 따라서 적어도 철산과 이백초의 독자인식은 같았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사업방향을 노동운동으로 돌리어 평양 시내에서 양말, ○공, 국수집 머슴군 인쇄직공들을 선동, 규합하여 조합을 조직하였으며 서울에서 발간되던 ‘공제’잡지의 기자로 일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일본헌병 경찰의 추행에 견디지 못하여 1921년에 만주를 벗어나 쏘베트로씨야로 망명하게 되었다.¹²

위의 글은 『선봉』에 실린 「이백초동무의 략력」의 일부분이다. 이백초에 관한 자료가 취약한 편인데 이 자료는 이백초에 관한 자료 중에서 신빙성이 높은 일차적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백초는 조선에서 『공제』 잡지의 기자로 활동하였고 이백초가 훗날 연해주로 망명하여 『선봉』 주요 편집인으로 활약하는 데에는 『공제』에서의 기자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공제』는 조선노동공제회의 기관지이다. ‘조선노동공제회’는 1920년 4월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하여 민족해방과 노동자·농민의 계급해방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목적에서 설립되었다.¹³ 1920년 4월에 조직된 한국 최초의 노동조합이라 일컬어지는 ‘조선노동공제회’는 근대 사회운동상 중요한 단체이다. ‘조선노동공제회’에 대하여 한 연구자가 한국 사회주의운동이 ‘조선노동공제회’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만큼 한국사회

12 『선봉』신문, 1934.7.31, 4면.

13 朴重華, 「朝鮮勞働共濟會主旨」, 『공제』창간호, 1920.9, 168~170면.

주의운동상 중요한 단체인 것이다.¹⁴ 따라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던 『공제』의 기자경험에 의해 이백초는 『선봉』의 편집인이 될 수 있었다.

『선봉』에서는 『동아일보』의 기사도 이따금 싣고 있는데 이것 또한 편집인 이백초가 조선을 떠났지만 조선에서 간행한 잡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다는 증거가 된다. 아울러 이백초는 당시 조선에서 간행한 잡지에 관심을 가졌을 수 있고 『어린이』의 독자였을 가능성이 있다. 필명을 사용하여 번역을 진행한 철산과 소설의 비평을 쓰고 있는 이백초의 독자 인식이 같았고 이백초가 조선잡지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백초가 철산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편집인 이백초 외에 『어린이』를 받아보고 『어린이』에 실린 내용을 재번역한 자는 『선봉』의 번역원일 수도 있겠다. 『선봉』은 창간이후 이백초가 책임주필을 맡았고 『권업신문』과 『한인신보』의 주필을 지낸바 있는 김하구가 총무로, 김철 계봉우 등이 번역원으로 활약하였다.¹⁵ 우선 먼저 번역원 계봉우의 행적을 살펴봤다. 1910년대 독실한 기독교 민족주의자였던 계봉우가 3·1운동 이후 해외로 망명하여 사회주의를 정치적 이념으로 채택하게 되고 한인사회당 입당하게 되고 이후 계봉우는 당 기관지인 『자유종』의 주필로 활약하였으며 1920년 9월 초 한인사회당이 한인공산당으로 확대·개편되면서 당에 의해서 계봉우는 김립과 함께 러시아로 파견되었다.¹⁶ 러시아로 파견된 후 계봉우는 『선봉』의 번역원으로 활동했고 계봉우로 확인된 필명은 사방자(四方子), 뒤바보, 북우(北愚)이다. 그러기에 철산이 계봉우일 가능성은 낮은 편이고 계봉우와 함께 번역원

14 오장환, 『한국 아나키즘운동사 연구』, 국학자료원, 1998, 30면.

15 반병률의 「러시아지역 한인신문 선봉과 1920.30년대 한인사회」에서 재인용.

16 반병률, 「러시아혁명 전후 시기 계봉우의 항일민족운동, 1919~1922기독교 민족주의자에서 사회주의자로」, 『한국학연구』 제25집, 2011, 41면.

으로 활동했던 김철일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까지 『선봉』의 번역원 김철에 관한 연구가 취약편이어서 김철이 철산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어린이』는 해외지사를 통해 연해주로 흘러간 경로 외에 조명희에 의해 『선봉』에서 『어린이』를 받아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조명희가 철산이라는 필명으로 『선봉』에 「생각해냈다」와 「재판」을 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조명희에 의해 『어린이』가 연해주로 흘러갔다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우선 먼저 길동무(방정환)와 조명희의 관계를 밝혀보았다. 방정환과 조명희는 동경유학시절 도요대학 동문으로서 교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엄희경¹⁷⁾의 연구를 바탕으로 논의를 펼쳐본다.

색동회를 조직하고 핵심멤버로 활약했던 방정환은 극예술협회의 동인들과 친분이 두터웠다. 엄희경의 『소파 방정환과 사회주의』에서 이들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방정환은 극예술협회의 동인과 친분이 두터웠고 한편으로 조명희와 같은 대학을 다녔기에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엄희경의 연구이다.

나까무라 오사무(仲村修)의 조사에 따르면 도요대학 학적부 기록에는 방정환이 1921년 4월 9일 전문학부 ‘문화학과’에 ‘보통청강생’으로 정식 입학하여 1922년 3월 30일 퇴학했다고 한다.¹⁸⁾ 방정환보다 2년 앞선 1919년, 감옥에서 나온 조명희는 일본 도요대학 동양철학과에 입학하였다. 엄희경의 연구는 조명희와 방정환이 일본유학시절 동문이었다는 점, 극예술협회에는 조명희 외에 훗날 색동회에 가담하게 되는 진장섭, 고한승,

17 엄희경, 『소파 방정환과 근대 아동문학』, 경진출판, 2000.

18 엄희경, 「소파(小波) 방정환(方定煥) 연구」, 인하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7, 45면.

조춘광, 마해송등이 있었다는 점에 기인해 방정환과 조명희의 관계를 추론해보았다.

그렇다면 동경유학시절을 거쳐 귀국한 이후 조명희와 방정환은 어떠한 관계를 가졌을까? 조명희와 방정환은 같은 해에 귀국하였다. 민윤식¹⁹은 방정환이 관동대지진이 일어난 해인 1923년 9월경 유학을 중단하고 일본을 떠났다고 밝혔다. 『별건곤』 1929년 1월호에 실린 「담뱃불 사건」에서 방정환은 귀국시간과 귀국이후의 생활에 대해 이렇게 회상하고 있다. 방정환의 회상을 보면 귀국한 시간이 늦은 가을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일본서 나와서 몇 날 안되던 때이니 벌써 여섯해 전 늦은 가을이었습니다. 개벽사일과 소년회일로 날마다 밤열시가 넘어서에 새문 밖 모화관까지 걸어나 갈때인데 지금은 담배대신 단장을 들고다니지만 그때는 반드시 손이나 입에 담배를 들거나 물고야 다녔습니다.’²⁰

한편 1923년 9월에 발간된 『백조』 제3호 「六號雜記」에서는 ‘金基鎭 方定煥 두분兄님이 새로이 白潮同人이 되어주셨다’고 박종화는 언급하고 있다. 방정환이 백조 동인이 된 것이 귀국 이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방정환의 귀국시간은 민윤식의 주장처럼 1923년 9월경으로 추정된다. 방정환의 귀국이유는 개벽사의 일과 소년회의 일에 전념하기 위한 것이라면 같은 해 귀국한 조명희는 생활난으로 인한 부득의한 귀국이다. 1923년 봄 경제난으로 대학을 중퇴한 조명희는 자신의 원고를 들고 서점과 잡지사

19 민윤식, 「청년아 너희가 시대를 아느냐」, 중앙 M&B, 2003.

20 『별건곤』 1929년1월호.

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원고를 출판해줄 곳을 찾아다녔다.²¹

조명희의 초기 작품 발표시간과 발표지를 살펴보았는데, 조명희의 작품은 1923년 11월 1일부터 『개벽』을 중심으로 많은 작품이 발표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봄 잔디밭 위에」는 시집 「봄 잔디밭 위에」의 대표작이었고 「땅속으로」는 조명희가 창작한 첫 번째 소설이다. 조명희 초기 작품 중에 대표작으로 선정될만한 「봄 잔디밭 위에」와 「땅속으로」는 모두 『개벽』을 통해 발표되고 있다. 1923년 9월경 방정환이 귀국한 것으로 봤을 때, 김기진이 『개벽』에 글을 실을 수 있었던 것이 방정환과의 관계가 작용했던 것처럼²² 조명희도 방정환과의 인연으로 인해 『개벽』에 작품을 활발히 발표했을 가능성이 높다. 주목해야 할 것은 1926년 9월까지 조명희는 지속적으로 『개벽』에 작품을 발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조명희가 1926년 9월까지 『개벽』을 중심으로 작품을 발표하였다면 방정환이 『어린이』에 실린 「생각해냈다」와 「재판」 번역본을 읽어 보았을 것이다.

조명희가 1928년 8월경에 연해주로 망명하였고 『선봉』에 글을 발표하기 시작한 것은 1928년 11월이다. 그렇다면 조명희가 「생각해냈다」와 「재판」 번역본을 읽었다고 하더라도 1926년 12월 이전에 『선봉』과 교류가 있었다는 실증적 자료가 있어야만 조명희의 영향으로 『선봉』에서 방정환의 번역본을 수용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조명희와 방정환이 도요대학 시절부터 귀국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해왔다면 문학적인 측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지점이 있었을 것이다. 조명희는 소설 『낙동강』으로 유명해졌지만 창작초기에는 소설이 아닌 시를 중심으로 창작활동을 펼쳤다. 조명희가 러시아에 망명한 후에도 활발한

21 1928년 6월 『동아일보』에 발표된 수필 「서론짜리원고상폐업」을 참조.

22 朴賢洙의 「김기진의 초기 행적과 문학활동」을 참조.

시 창작활동을 이어갔고 한편 아동문예에 대한 관심을 선보이면서 동시²³를 창작하고 「아동문예를 낳자」는 비평문을 썼다. 조명희의 동시에 관해서는 ‘조명희 창작시 67편중에 8편이 동시’라는 논의만 언급되고 조명희와 아동문학에 관한 본격화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조명희의 동시 창작이나 아동문예에 관한 평론은 망명이후로 집중되어서 망명이후 아동문학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고 치부되기 십상이다. 하지만 조명희는 일찍이 조선에서의 창작시 「어린이」에서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자신의 ‘아동관’을 드러내고 있다.

「어린이」의 원문을 보면, 그는 어린이를 사람과는 다른 신과도 같은 존재로 상정하고 있다. 그는 아이들의 욕설을 ‘귀여운 욕설’, ‘즐거운 음악’으로 비유하면서 ‘동심천사주의’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조명희가 ‘아동’에 눈길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동경유학시절 방정환과 색동회멤버와의 교류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명희와 방정환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조명희와 방정환은 동경유학시절 동문의 관계를 떠나서 귀국이후에도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을 것이고 그 원인은 공통적으로 아동문학에 대해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린이』가 해외지사가 아닌 조명희에 의해 연해주로 흘러갔다면, 조명희가 철산이라는 필명으로 친분이 있었던 방정환의 번역본을 재번역하여 『선봉』에 실을 수도 있다. 조명희는 충청북도 진천 출신으로 방언을 사용해서 번역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단지 제2장의 텍스트 비교에서 ‘보선’을 ‘버선’으로 번역하였고 일부용어를 방언으로 활용했다는 것만으로 조명희라고 확정짓기는 어렵다. 이미 확보된 실증자료에서 조

23 망명이후 「전봇대」, 「달아나기」, 「연필칩」, 「소금쟁이」, 「눈싸움」, 「샘물」, 「새들의 회의」, 「어린 두 나무꾼」 등 8편의 동요를 발표한다.

명희의 필명이 철산이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고 『선봉』에 「생각해냈다」와 「재판」이 실린 시간과 조명희의 망명시기간이 조금 어긋나기에 조명희가 철산일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어린이』는 일반적인 경로 즉 해외지사를 통해 연해주 독자에게 읽혔을 가능성이 높고 『어린이』를 읽은 누군가가 철산이라는 필명으로 「생각해냈다」와 「재판」을 재번역하여 『선봉』에 실었을 것이다. 물론 조명희가 1926년부터 『선봉』과의 교류가 있었다는 실증자료가 확보되면 조명희가 철산일 가능성도 높아지지만 적어도 지금 확보된 자료로 보았을 때 조명희가 철산일 가능성은 낮다.

4. 결론

본고는 사회주의계열 신문 『선봉』에서 민족계열잡지 『어린이』에 실린 「생각해냈다」와 「재판」의 번역본을 수용했다는 사실에 기초해 논의를 펼쳐보았다. 제2장에서는 텍스트비교로 『어린이』와 『선봉』에 실린 「생각해냈다」와 「재판」의 상호관계를 밝히고 제3장에서는 누가를 통해 어떠한 경로로 『어린이』가 연해주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해보았다.

『어린이』의 독자담화실을 보면, 해외독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어린이』는 해외에서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다. 독자담화실에서는 해외의 일부 독자 혹은 조선과 서신이 가능한 독자들의 글만 실렸고 이들 외에도 해외에서 『어린이』를 열독한 독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고를 통해 이른바 민족계열잡지로 상정되었던 『어린이』가 공산당

신문 『선봉』에서 수용할 수 있는 작품 「생각해냈다」와 「재판」을 싣고 있다는 사실로 『어린이』는 사회주의에 대해 열린 태도를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린이』에 실린 보빈스카야의 소년소설 「생각해냈다」와 「재판」의 번역본이 러시아지역까지 널리 읽혔고 전동맹 공산당 기관지 『선봉』에서 수용할 만큼의 영향력을 가졌던 것이다. 이것으로 『어린이』가 해외에서 미친 영향력을 다시금 재고해보는 계기가 되겠고 『어린이』의 위상을 재정립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완전히 증명하지 못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하나는 『어린이』에 실린 「생각해냈다」와 「재판」의 저본을 찾아보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저본을 찾아야만 저본과 번역본의 대조가 가능하고 그러한 작업이 진해되어야만 『선봉』의 번역본이 『어린이』의 번역본을 참조했다는 것이 완벽하게 증명된다. 다른 하나는 철산과 조명희의 관계를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철산은 누구이고 조명희가 언제부터 『선봉』과의 관계를 맺었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실증자료가 부족하여 증명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철산과 조명희에 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해결해야 되고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어린이』, 『선봉』, 『공제』, 『별건곤』, 『동아일보』

2. 논문

반병률, 「러시아지역 한인신문 『선봉』과 1920.30년대 한인사회」, 『역사문화연구』 19집, 2003.

엄희경, 「소파(小波) 방정환(方定煥) 연구」, 인하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7, 45면.

최賢洙, 「김기진의 초기 행적과 문학활동」, 『대동문화연구』 제61집, 2008.

반병률, 「러시아혁명 전후 시기 계봉우의 항일민족운동, 1919~1922기독교 민족주의자에 서 사회주의자로」, 『한국학연구』 제25집, 2011, 41면.

박종진, 방정환의 번역작품 연구 『귀먹은 집오리』와 『불노리』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 연구』, 2017.

박종진, 「1920년대 일본아동문예잡지 『긴노후네』와 조선동화」,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 22호, 2018, 616면.

3. 단행본

오장환, 『한국 아나키즘운동사 연구』, 국학자료원, 1998.

엄희경, 『소파 방정환과 근대 아동문학』, 경진출판, 2000.

원종찬, 『아동문학과 비평정신』, 2001.

이명재, 『소련지역의 한글문학』, 국학자료원, 2002.

민윤식, 『청년아 너희가 시대를 아느냐』, 중앙 M&B, 2003.

한국방정환재단 엮음, 『정본방정환전집3』, 창작과비평사, 2019.

Abstract

Comparison of Boys' Fionel Activities
in the Socialist Countries in *Children* and *Seon-bong*

Sim, Gyeongsun
(Inha University)

Both “Children” magazine and “Seon-bong” newspaper were founded in 1923. The difference is that the former is rated as a series of ethnic magazines, while the latter is a Communist newspaper of the whole Alliance. Although the purpose of the two journals is different, the same works are included from time to time, such as “Seon-bong” referring to “Children”, modifying and publishing two juvenile novels by Bowenska in 1926, “think well” and “trial” in “Seon-bong”, and the content is much the same. Taking the two works as examples, this paper studies the interesting facts that the translations published in nationalist magazines are accepted by socialist newspapers.

This paper consists of 4 parts. Part I, Introduction, the problems to be solved in the research is put forward. Part II, Text Comparison, the conclusion that “Seon-bong” refers to “Children” is drawn by the comparison of the translated texts of “Children” and “Seon-bong”. Part III, Route of Transmission, the identity of the pen name “Cheolsan” in “Seon-bong” and the route of “Children”

to the coast is studied. Part IV, Conclusion,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nd the shortcomings are explained.

■ Key words : *Children and Seon-bong*, Nationalism, Socialism, Translation

■ 논문접수일: 2019. 10. 30. / 심사기간: 2019. 11. 25. ~ 2019. 12. 6. / 게재 확정일: 2019. 12. 8.